

여협, 결혼문화에 관한 의식조사

여성 결혼비용 2천3백만원 이상, 부모 부담 여전

대졸 학력층 부모 의존도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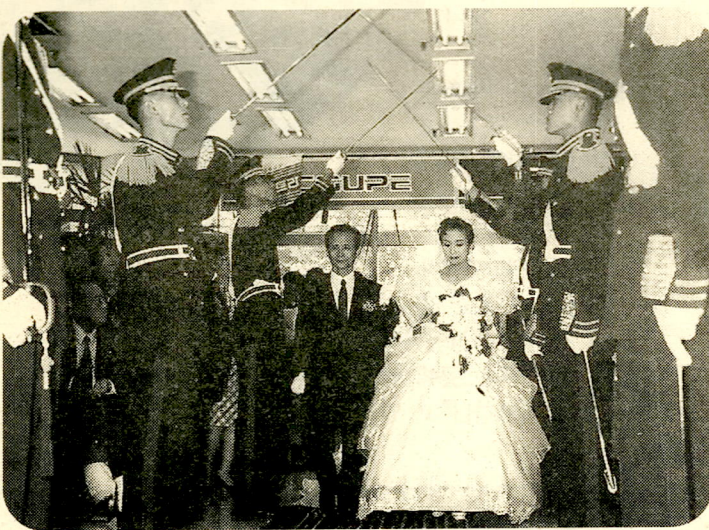
최근 결혼식을 올리는 젊은이들은 평균 2천만원 이상의 결혼비용을 쓰고 있고 결혼비용은 대부분 부모의 도움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연숙, 이하 여협)가 발표한 '결혼예식장 이용실태 및 혼례문화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여협은 지난 94년 7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예식업소의 불공정거래 여부와 결혼예식문화에 관한 신혼부부들의 의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94년 7월 이후 결혼식을 한 서울 거주 신혼부부 3백29명과 서울 지역 소재 허가 예식장 6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혼수비용 부모 의존 바람직 하지 않아

이 자료에 따르면 혼수준비는 본인이 벌어서 하기 보다는(22.2%) 부모가 준비하거나(27.1%) 혹은 부모가 도와주는 경우(50.8%)가 대부분이다. 특히 고졸이하의 학력층에서는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본인이 준비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40.7%) 대졸이상 학력층에서는 부모가 준비한 경우가 더 높아(34.5%) 대조적이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이상(51.4%)이 본인이 혼인 전에 벌어서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혼수비용 마련 방법이라고 응답해 부모의 전적인 도움에 의지하는 것을 옳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결혼비용에 있어서는 혼수, 예단, 예식비용 등을 포함해 2천만원 정도 들었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자가 1천6백만원,



지난해 7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도 예식업소의 불공정거래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비 2백70~80만원 대부분 부대서비스 비용으로 지출, 일괄이용 강요 여전

여자가 2천3백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가장 적게 든 경우가 2백만원이었고, 많게는 1억원 을 쓴 경우도 있었다.

결혼당시 마련했던 혼수 품목으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구(식탁, 문갑, 장롱, 침대 등)를 가장 많은 사람이 꼽았으며(36명), 가전제품(식기건조기, 청소기, 비디오, 전자렌즈 등), 귀금속(예물), 이불(침구류), 한복(두루마기), 예복의 순으로 꼽았다.

함들이기 절차 개선돼야

결혼식 절차 중 개선되거나 생략되길 희망하는 부문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의 70.5%가 '함들이기'를 들었다. 그 다음으로 피로연 잔치(29.2%), 폐백(20.4%), 청첩장 돌리기(12.8%), 부조 받기, 비디오 촬영, 부케 던지기, 예단 순으로 꼽았다.

신혼부부들은 결혼준비 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예단을 포함한 혼수마련을 꼽고 있으며, 특히 건전한 혼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결혼예식 비용은 평균 2백70~2백80만원으로 예식장 대여료 보다는 부대서비스 비용으로 대부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예식장이 아닌 각종 단체, 협회 등의 유료시설이나 구민회관 등의 무료시설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 비용은 크게 절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혼부부 2쌍 중 1쌍이 예식장에서 드레스, 사진, 화장, 비디오 등의 부대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이용할 것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특히 드레스, 사진, 미용요금, 비디오 촬영비 등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예식장 이용실태를 보면, 예식장소로 전문예식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50%정도이며, 주변의 교통환경이 예식장 선택의 첫번째 고려요인이 될 만큼 예식장의 교통혼잡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신혼부부 4쌍 중 3쌍이 주말 낮 시간에 결혼식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식장 부대서비스 비용 여전히 비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특히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결혼식을 올린 응답자들도 법률개정으로 예식비용이 자율화된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에 대한 홍보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을 알고 있는 응답자들 중에는 개정된 법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한 예식문화가 정착되기 보다는 오히려 예식비용의 상승만을 초래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해 예식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도나 단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

여협은 건전한 결혼문화를 위해 다양한 혼례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종교기관에서의 결혼예식이 증가추세를 감안해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의식교육이나 건전혼례 모형을 개발한다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제언했다.

(황금희 기자)